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Vol. 18, No. 2, pp. 135~149

1920~30년대 가사 교과서 육아단원의 외형 및 내용 분석

고 상 옥* · 전 미 경**
동국대학교 가정교육과* · 동국대학교 가정교육과**

A Study on the Contents of Child Rearing in Household Textbooks during the 1920s-30s

Goh, SangOK* · Jun, MiKyung**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ongguk Univ.**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unit of child rearing in four Household textbooks approved by the Department of Education during the 1920s-30s. These Household textbooks is contained a unit related to child rearing among Household textbooks approved by the Department of Education at that tim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structure of the child rearing unit in the Household textbooks were largely composed of 'part, chapter and section' and this structure and contents were similar among all the textbooks. Second, in general, the four textbooks spared a large space for 'childcare,' 'nursing' and 'new-born babies and infants,' suggesting the importance of these contents. Third, cautions for pregnant women were taught to call attention not only of pregnant women but also of their families to importance of pregnancy. Fourth, the child rearing unit contained many illustrations and pictures and some pictures were shared among the textbooks. Firth, in acquiring medical knowledge related to diseases, the textbooks demanded child-rearing mothers to 'observe' and 'scrutinize' any symptoms appearing in the child. These contents were connected with commercial products but far distant from the realities. The detailed method of 'nursing' also required a lot of time and accuracy impractical in real life.

주제어(Key Words) : 식민지 시기(colonial period), 가사교과서(Household Textbooks), 여성교육(Women Education), 육아(Child Rearing), 현모양처(Wise-mother Good-Wife)

1) 본 연구는 동국대학교 논문게재 장려금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교신저자: 전미경(preba@chol.com)

Ⅰ. 서 론

1876년의 개항은 조선 사회의 획기적 변화를 가져왔으며, 그 중 가장 큰 변화는 '여성'의 삶과 여성에 대한 시선이라 할수 있다. 개화기 불기 시작한 '남녀동권'의 바람은 당연한 규범이자 익숙한 관습으로 묵인되었던 과부개가금지, 축첩제, 내외법에 대한 비난을 봇물처럼 일으켰다. 무엇보다 남녀가 동등하기에 동등한 권리를 주어야 한다는 '남녀동권' 주장의 핵심은 여성에게 교육의 권리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근대적 여성교육은 전통적 여성상을 제시하면서도 동시에 불완전한 상태로 능동적인 평등한 여성상을 제시하며 국가를 위하여 실력을 양성하는 방법의 하나로 자녀 교육을 담당하는 어머니 능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국가의 근본은 가정이고, 가정의 근본은 여자이며, 어머니로서 여자는 국민을 낳아 기르고 교육해야 하기에 여성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시급하였다. 당시의 국가적 위기상황은 애국심이 강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어머니 양성을 필요로 했으며, 이는 여성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시키는 배경이 되었다(조경원, 1999).

보통학교 여학생에게 '재봉'을 가르치면서 시작된 우리나라의 가정과 교육은 여성교육의 핵심이었다. 이화학당 초기는 교육이라기보다 양육에 더 치중하여 가정과 교육을 모범적인 주부, 기독교의 선교사를 만드는데 목적을 두며, 기숙사 생활에서 밥 짓기, 옷 만들기, 청소, 설거지 등을 시중들면서 배우게 하는 생활교육이었다. 가정적 분위기 속에서 조선시대 가정교육에 준한 내용을 가르쳤고, 1896년 '재봉'과 '자수'를 가르치며 여성들을 위한 가사과를 만들었다. 또한, 1887년에 설립된 정동여학교는 한국의 주부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1890년 '가사'와 '침공' 과목을 개설하였다. 침공과목에서는 편물과 자수를 가르침으로써 생활교육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때 교육은 주로 실습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당시의 여선교사들은 한국의 비과학적이고 비능률적인 가정생활에 대하여 개선의 필요성을 느꼈지만 한국인의 생활풍속, 습관을 그대로 살리면서 합리적 사고방식을 길러 한국적 현모양처가 되도록 재봉, 자수, 조리, 가사 등의 기술·기능교육을 시키고 있었다(정덕희, 1993).

한편, 일제 식민지 정책은 초기 근대교육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교과서'의 발행 및 교과내용의 구성을 주요한 정책으로 삼았다. 교과서의 교과내용을 통해 사회통합적인 공통의 이데올로기와 사상을 흡습할 수 있으므로 일본은 한국국민을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히 일본어, 실업교육(여성에게는 재봉, 수예)에 역점을 두었다(이종국, 1991:57). '조선인이 일본인과 동화하는 제일 첩경이 여자교육의 진보발달에 있다'고 하여 일본 식민지화의 2세 교육을 위한 여성교육의 시행을 강조하였다(김재인, 2001).

이처럼 교과서는 교육의 핵심이기에 가사교과를 이해하기 위하여 교과서에 주목한 연구는 이미 다수 진행되었다. 가정과 교과서를 분석텍스트로 하여 그 외형과 내용을 분석한 대표적 연구로는 윤인경(1996a, 1996b, 1997, 1998)과 신상옥(1995)의 연구가 있으며, 교과서 내 특정 영역에 주목하여 분석한 연구로는 이영숙(1999), 최정혜(2002)의 연구가 있다. 또 우리의 가정과 교과서를 다른 나라의 교과서와 비교한 연구로는 차미경(1991), 국윤옥(1996), 박순자·신상옥(2000), 나유경(2005)의 연구가 있다. 그러나 초기 가정과 교육의 내용과 방향을 읽을 수 있는 식민지 교과서에 관한 연구로는 정덕희(1980)와 전미경(2004a, 2005a)의 연구가 있을 뿐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식민지 시기 이러한 여성교육의 현실을 되짚어 볼 때 당대의 가정교과의 내용 파악은 가정과 교육의 목표를 확인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작업이다. 사실 여성교육의 시작은 한국여성사에 중요한 뿌리이므로 그에 관한 선행연구는 이미 적지 않게 논의되고 있으나, 당시 여성교육 현장의 한가운데 있었던 가사 교과목과 가사교과서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식민지 시기 가사교과서 가운데 '육아단원'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분석텍스트인 가사교과서는 일본인에 의해 발행된 교과서였다. 1908년 조선총독부는 민간에 의한 교과서의 편찬과 발행을 억제, 금지하는 법적 근거로 '교과용 도서 검정규정'을 마련하여 '조선총독부가 편찬한 도서 또는 조선 총독의 검정을 거친 도서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면서 총독부가 편찬한 교과서가 없을 때에는 총독부가 인가한 교과서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것마저 없는 교과목은 당시 일본의 교육기관인 문부성의 검정을 받은 교과서를 채택하라고 하였는데(장신, 2004), 가사교과서가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문부성 인가를 받은 가사교과서에서 '육아' 단원이 실린 4권(『신시대 가사교본 하』(1928), 『최신가

사교과서 하』(1930), 『가사신교과서 하』(1930), 『가사신교과서 하』(1937))의 교과서를 분석 텍스트로 하고 있다. 이들 교과서는 모두 제2차 조선교육령이 공포된 시기(1922-1937)에 발행되었는데, 여학생의 중등교육기관인 고등여학교, 실업고등여학교, 여자사범학교의 '가사' 교과목을 위한 교과서이다. 현재 식민지 가사교과서의 특정영역을 내용 분석하는 선행연구가 전무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연구가 비록 '육아' 영역만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교육의 교과내용을 구체적으로 구명하는 시발점이 된다는 측면에서 적지 않은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 또 이 연구의 구체적 연구내용은 크게 외형적 측면의 분석과 내용적 측면의 분석으로 나누어진다. 외형적 측면은 양적연구를 의미하는데, 육아단원의 구체적 구성은 어떠한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내용적 측면으로 육아단원의 하위영역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며, 그 특징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식민지 시기 가정학은 하나의 학문을 너머선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조선 총독부의 입장에서 볼 때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식민통치를 위하여 사회의 기초단위인 가정의 개량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였으며, 탈식민화를 모색했던 진영 역시 가정의 개량을 통해 개별 가족구성원의 근대적 역량의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특히 가정 안에서 어머니로서의 여성은 자녀를 근대적 국민을 양육해야 하는 역할이 부여되면서 '육아'는 국가의 경쟁력을 도모하는 과업으로 조망 받았다. 여성을 향한 신문과 잡지의 매체에서는 육아관련 지침이 끊임없이 소개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때,[1] 가사교과서의 육아 단원의 분석은 어머니 노릇의 구체성과 그 의의를 드러내는 데 의미 있는 작업이라 여겨진다.

Ⅱ 이론적 배경

1. 식민지 시대 아동관과 모성됨

소파 방정환은 아이들을 부모의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관념을 버리고 이 불행한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제 2세 국민을 건실한 인간이 되게 하는 것이 민족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천도교의 영향을 받은 방정환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예속된 생활을 하지 않고 인권을 가진 인간으로 길러서 독립정신이 강한 인간이 되게 하자는 것으로, 아동 개개인의 독립이 조국의 독립이라고 생각하였다(차호임, 1997). 1920년대에 본격적으로 펼쳐진 어린이운동에 의해 '어린 이'라는 지칭어는 잘 자랄 권리를 가진 '어린이'가 되어 젊은이, 늙은이와 대등한 하나의 인격으로 인정할 것이 요구되었다. 또한 1923년부터 5월 1일을 어린이날을 재정하였으며, 어린이들의 정서적 함양과 조국 독립의 뜻을 담은 내용의 많은 잡지들을 출판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어린이』지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1923년 방정환이 창간한 『어린이』는 1949년 12월에 폐간되기까지 통권137호가 발행되었는데, 어린이들이 재미있고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삽화나 사진을 넣어 다양하게 꾸몄다. 『어린이』를 비롯하여 당시의 잡지에는 어린이를 위한 동화, 소설, 수필, 동요, 동시 등의 내용이 실렸고 이를 통해서 아동이 스스로 생각하도록 하였으며, 이것은 어른과 다른 어린이의 세계를 존중하기 위함이었다.

한편, 아동관의 변화 속에서 일제의 조선에 대한 여성교육은 '부녀자의 덕목'을 기르고, '생활에 유용한 지식기능'을 가르치는 현모양처주의의 교육이념에 따라 식민지체제에 순응할 수 있는 순종적인 식민지 여성을 양성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는 가정 내에서 가정의 운영자로서 또한 아이들의 양육자로서의 모성으로 그 순종을 가정 내에 유포시키고, 또한 이러한 부덕을 지닌 여성들의 역할을 통해 조선의 순화가 가능하였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모양처주의의 식민지 여성교육이념은 일제의 자국에서의 양처현모주의의 여성교육이념을 반영한 것인데, 이는 일제가 점차 조선여성의 모성역할에 주목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이송희, 2005).

식민지 시기 여성교육의 정책적 측면을 이해할 수 있는 1911년의 제1차 조선교육령 중등교육목적을 살펴보면 "여자고등보통학교는 여자에게 고등의 보통교육을 실시하는 곳으로서 부덕을 기르고 국민된 성격을 도야하고 생활에 유용한 지식기능을 부여 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여자고등보통학교 교육과정은 '여자교육을 생활실제에 접근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주당 총 31시간 중 재봉 및 수예가 10시간, 이과와 가사가 합쳐서 4시간(1학년은 2시간)으로 총 수업시간의 거의 반을 차지한다. 또 1922년의 2차 교육령에서는

1) 식민지 시기의 가장 대표적인 여성잡지인 『신여성』에 나타난 가정관련자료에 관한 논의는 지화연(2005) 참조.

지역사회의 실정에 따라 '교육'이라는 과목을 교육과정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교육'은 가정에서 자녀양육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주목적으로 교수내용은 아동심리의 대요, 신체양호와 지덕도야에 관한 일반적 지식, 가정교육과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과의 관계를 가르쳤는데 여학생들에 대해 모성에 관하여 철저히 가르쳤고,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실제적인 양육지식과 아이 낳는 법에 대해서도 가르쳤다(안태윤, 2001).

이러한 부덕을 지닌 여성은 가정에서 2세 교육을 담당해야 하는 어머니로서 지식 습득의 필요성을 강요받았는데 1920-1930년대의 동아·조선일보의 신문기사에는 당시의 높은 사산율 및 영아사망률이 조선의 어머니들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의 결여 때문이라고 여겨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체 신문기사에서 '임신'과 '출산', '보육'에 관한 내용과 "수유의 시간과 양의 규칙화, 영양개선, 의료기관을 이용한 질병치료와 예방, 위생관리 등의 개선"을 비중 있게 다루었다(김영주·신양재, 1992). 또한 '아동 자체의 특성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가정에서 아동을 위주로 하는 교육을 하도록 일반에 계몽시키려 하였다. 이처럼 식민지 시기 이상적 어머니 상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어머니 노릇을 하는 현모(賢母)이기에 가장 비난받는 어머니의 모습은 '무지한 어머니'였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무지는 자식을 죽게 만들고, 사회를 병들게 만들며, 종국에는 인류의 멸종을 가져올 만큼 엄청난 파장을 가진 죄악이라고 하면서 모성의 과학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 이상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식민지 시기 여성은 양육에 필요한 광범위한 지식의 습득이 요구되었으며, 동시에 질병의 징후를 읽을 수 있는 단서를 찾기 위하여 자녀의 몸을 계속 주시해야 했다. 어머니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전문적 지식을 광범위하게 습득하여 실천할 수 있어야 했다(전미경, 2005b).

2. 식민지 시대 가사교과목과 가사교과서

식민지 통치에서 식민 교육은 경제적 수탈 못지않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여성은 2세를 생산하고 교육한다는 점에서 교화 대상으로 중시되었다. 한 일본인 참사관이 경성여자고등학교를 시찰한 후 "조선인의 가정을 풍화하는 것은 곧 전 사회를 풍화하는 것이니 이와 같이 하여야 비로소 우리와 저들과의 감정적 융합이 영구히 될 수 있는 것이다"(이만규, 1991)라고 주장한 것처럼 당시의 여성교육은 국가발전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일제는 식민통치에 순응하고 가부장적 사회체제에 적합한 여성을 '현모양처주의' 교육을 통해 양성하려 하였다. 1908년 4월 4일 학부가 발표한 여성의 중등교육을 위한 '고등여학교령'에 따르면 통감부의 교육정책은 인문교육보다 실업교육이 강조되었고, 재봉, 수예, 가사 등 가정생활에 필요한 실기 위주의 교과인 기예 교과에 치중하였다. 일제의 이러한 여성교육정책은 일제가 조선을 강점한 후 더욱 강화되었다. 조선총독부는 1911년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여 여자고등보통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가정 내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현모양처'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으로 정숙·온순한 덕의 함양을 기본 방침으로 삼고 부덕을 갖춘 식민지 여성을 길러 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모든 학과목은 부덕의 함양을 위해 여성으로서의 역할과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가르치는데 주안점을 두었고, 당시 여자고등보통학교는 가사, 재봉, 수예 등 실기 위주의 기예 교과에 가장 많은 시간을 배당하였다. 수예는 필수과목이었고 재봉 및 수예는 3개 학년에 주당 10시간씩 배정받아 이들 과목이 전체 교육시간의 37.5%를 차지했다(유해정, 1990).

한편, 당시 사용한 가사 교과서를 살펴보면 박정동에 의해 1907년 우문관에서 발행된 『국문 신찬가정학(전)』은 보통 여성들이 가정에서 해야 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 이 가정교과서는 총7장으로 제1장 어린아이 교양 편은 태교, 양육법 등을 기록하고 있으며, 제2장 가정교육 편은 가정교육의 필요성, 목적, 방법을 기록하고 있다, 제3장은 노인 봉양 편으로 노인의 봉양과 병환 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자세히 수록 되어 있다. 이외에도 제4장 병간호, 제5장 교제, 제6장 피난, 제7장 하인을 부림 등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1910년 전후의 가정교과서로는 학부편집국이란 기구를 통해 인가를 받은 교과서만이 사용 가능했는데, 이들 교과서 목록이 실려 있는 『교과용도서일람』에 들어 있는 가정교과서는 현공렴(玄公廉)이 발행한 순 한문본 『한문가정학』, 국한문본 『신편가정학』이 있다. 그러나 이 교과서는 1912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불인가교과용도서』로 분류되다가, 1914년에는 『신정가정학』과 함께 불인가교과서가 된다(전미경, 2005a).

그 후의 교과서로는 앞서 말했듯이 문부성의 검정을 받

<표 1> 분석 텍스트

교과서명	저자	발행년도	발행처
『신시대 가사교본 하』	오찌키요(越智キヨ)	1928.10.24	경도 : 성야서점
『최신가사교과서 하』	작가미상	1930.1.25	동경: 대일본도서주식회사
『가사신교과서 하』	이시자와치마(石澤吉磨)	1930.11.11	동경 : 집성당
『가사신교과서 하』	左保會	1937.1.23	동경 : 등학교교과서주식회사

은 일본교과서가 그대로 유입되어 조선의 학교에서 사용되기도 하였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에 소장된 가사교과서로 제2차 조선교육령 시기(1922-1937)에 발행된 『신시대가사교본 하』(오찌키요越智キヨ, 1928), 『현대가사교본 상』(카이히사甲斐久子, 1929), 『최신가사교과서 하』(작자미상, 1930), 『가사신교과서 하』(이시자와치마石澤吉磨, 1930), 『신편가사교과서 상』(콘도코오조우近藤耕藏, 1934), 『실지응용가사교과서 상』(요시무라치즈吉村千鶴, 1935), 『가사신교과서 상』(佐保會, 1937), 『가사신교과서 하』(佐保會, 1937) 등이 있는데, 이 교과서는 여학생의 중등교육기관인 고등여학교, 사범학교, 실업학교의 가사교과목을 위한 것으로 "의", "식", "주", "양로", "간호", "육아", "가사경제", "가정관리" 영역으로 구성되었다(전미경, 2004a).

Ⅲ. 연구방법

식민지 시대 가사교과서의 '육아' 단원을 분석하고자 하는 이 연구는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의 연구방법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내용분석이란 일반적으로 교과서, 신문, 잡지 등과 같은 문서나 광고 및 그림과 같은 시각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문서나 시각자료를 분석텍스트로 하는 내용분석은 연구자가 연구하려는 텍스트의 내용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정의하고, 적절한 범주를 명확하게 설정함으로써, 동일한 방법으로 연구과정을 거쳐 간다면 다른 연구자 역시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즉, 내용분석은 언어나 문자로 표현된 의사소통의 내용을 객관적, 체계적, 수량적으로 기술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육아' 단원이 실린 가사교과서 하권을 외형적·내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교육부에서 정하고 있는 교과서의 평가기준은 교과서의 크기, 활자, 지질, 색도, 기준 쪽 수 등인데, 이미 전미경(2004a)에서 가사교과서 상·하권의 외형을 분석하였으므로, 이 연구는 '육아' 단원에 초점을 맞추어 육아단원의 전개방식·그림·표 등의 외형 전개와 내용 및 그 범주별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 이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가사교과서는 <표 1>과 같다.

Ⅳ. 연구결과

1. 육아단원의 외형적 측면

1911년 조선교육령은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교과서는 일본어를 사용토록 규정하였고 가사교과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가사교과서는 상하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권의 대단원은 '의복', '식품', '주거'이며, 하권의 대단원은 '양호', '간호', '육아', '가정경제', '가정관리'이다. 가사교과서의 판형은 국판(150×220 또는 150×210)이며, '겉표지-속표지-화보-머리말(서언과 범례)-목차-본문-부록-판권면-뒤표지'로 세로쓰기의 조판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는 이상의 전개 중에서 본문의 '육아' 단원을 분석하고자 하는데, 이 단원은 하권 교과서의 약 35% 전후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좌보회(1937)의 교과서는 육아단원이 전체 단원의 42.1%에 달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그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전미경, 2004a).

1) 육아단원의 하위영역별 구성

가사교과서는 대단원에 해당하는 '편', 중단원에 해당하는 '장', 소단원에 해당하는 '절'로 전개되었으며, 이상의 단원은 목차에 수록되어 있었다. 이 연구의 초점인 '육아'는 '편'에 해당하는 대단원이었고, 교과서마다 '장'과 '절'의 전개는 차이가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표 2>와 같다.

2) 일유 : 젖이 입에 남아 입 밖으로 흘러나옴. 토유는 소화불량에 의해 생김.

〈표 2〉 가사교과서의 대·중·소단원

교과서	대단원	중단원 (장)	소단원 (절)
신시대 가사교본 하 / 1928	육아편	어머니의 의무	·
		부인위생	부인위생의 필요/부인의 생리/부인의 특별섭생
		임신	정후/임신시의 주의
		출산	준비/출산/산후의 섭생
		신생아 및 유아의 보호	·
		포유	모유포육/유모/인공포유/혼합포유/일유(溢乳)[2]와 토유(吐乳)
		젖니	젖니의 시기/젖니기의 주의
		이유	이유의 시기/이유의 방법과 대용식
		소아의 의식주	소아의 의복/소아의 식품/거실(공간)
		보육	보육의 목적/신체의 발육/지능의 발육/가르침/유희/그림책과 책
		취학	·
		소아병과 그 간병	아구창/급성소화불량/유아각기/이질/홍역/성홍열/디프테리아/장기생충/뇌막염/백일해
최신 가사 교과서 하 / 1930	육아편	어머니의 임무	·
		임신과 출산	임신의 정후/임부의 섭생/출산전후의 주의사항
		신생아 및 유아(幼兒)	발육상태/보호
		영양	모유영양/인공영양/혼합영양/이유기의 주의
		유아의 보호	유아의 의식주/젖니/유아의 질병
		완구와 유희	완구/유희
		가정교육	일상의 가르침/정조와 함양
가사신교과서 하 / 1930	육아편	육아의 의무	어머니로서의 책임/어머니로서의 기쁨
		태아의 보호	임신의 정후/신체의 주의/정신의 주의
		출산	준비/출산/산후
		건강아의 발육	건강아의 특징/심신의 발육
		신생아의 보호	입욕/제대/변통/강보/의복/수면/울음소리/첫 발모
		유아의 포육	포육법의 종별/모유포육/유모유포육/우유포육/연유포육/혼합포육/유아원/탁아소/소아보건소
		젖니, 이유	젖니/이유
		유아의 의식주	의복/음식물/유아 방/수면
		유아의 보육	심정(心情)/완구/그림/수공/유희
		아동의 교육	의무교육/학교와의 연락/친구/읽을거리/체육
		소아병	유아(乳兒)에게 많은 병/유아(幼兒)에게 많은 병
		육아의 의무	·
가사신교과서 하 / 1937	육아편	임신 중의 마음가짐	임신의 정후/임신상의 주의/정신상의 주의
		출산	준비/출산/산후의 섭생
		영아의 취급	·
		영아의 발육	영아의 특징/정신 및 신체의 발육
		유아의 포유	모유포육/유모포육/인공포육
		치아와 이유기	치아/이유기
		유아의 일상생활	·
		소아의 병	·
		유아의 보육	완구/그림/유희/언어 및 담화/가르침
		취학	의무교육

〈표 3〉 교과서별 육아단원의 하위영역

교과서 / 내용	『신시대 가사교본 하』 (1928)	『최신 가사교과서 하』(1930)	『가사신교과서 하』(1930)	『가사신교과서 하』(1937)
모성	○	○	○	○
부인 위생	○	·	·	·
임신	○	○	○	○
출산	○	○	○	○
신생아 및 유아	○	○	○	○
포유	○	○	○	○
젖니	○	○	○	○
이유	○	○	○	○
유아의 의식주	○	○	○	○
보육	○	○	○	○
취학	○	·	○	○
질병	○	○	○	○

이상의 육아단원을 중단위 수준에서 내용별로 범주화하면 크게 12영역으로 세분화 할 수 있으며, 대략적으로 그 구성을 살펴보면, ① 여성의 '모성됨'을 설명하는 '모성', ② 청결을 중요시 한 '부인 위생', ③ 임신의 징후, 임신 시 주의사항을 다룬 '임신', ④ 출산준비, 출산과정, 산후섭생의 내용을 수록한 '출산', ⑤ 신생아 양육 및 그 특징과 유아 발달과정의 내용을 설명한 '신생아 및 유아', ⑥ 수유의 종류, 수유 방법을 알려주는 '포유', ⑦ 유치가 나는 시기, 유치 보존·유치기(乳齒期)의 주의사항을 기록한 '젖니', ⑧ 적절한 이유 시기, 이유 방법, 이유식을 설명한 '이유', ⑨ 유아의 의복·식품·거처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는 '유아의 의식주', ⑩ 유아의 수면·신체의 보육·목욕 등을 다루는 '보육', ⑪ 의무교육으로서의 학교교육, 취학 후의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는 '취학', ⑫ 소아에 흔한 질병과 그 사후 관리가 제시되어 있는 '질병'으로 나눠진다. 이상의 내용을 교과서별로 정리하면 <표 3>와 같다.

이를 교과서 별로 살펴보면, 『신시대 가사교본 하』(1928)는 '보육', '포유', '신생아 및 유아'의 순으로 '보육'의 단원이 전체단원의 5분의 1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신 가사교과서 하』(1930)의 교과서는 다른 교과서와 달리 '부인위생'과 '취학' 단원이 없으나, '포유' 단원에 많은 지면을 할애 하고 있다. 『가사신교과서 하』(1930)는 '포유', '신생아 및 유아', '보육'의 순이고, 마지막으로 『가사신교과서 하』(1937)는 '신생아 및 유아', '보육', '질병', '포유' 순으로 지면수가 많았으며, 다른 교과서와 달리 "영아의 의복, 침구는 왜 따뜻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와 같은 문제를 수록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제2차 교육령시기 가사교과서는 전반적으로 '보육', '포유', '신생아 및 유아'에 많은 지면 수를 할애한 것으로 보아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육아단원의 그림 및 표 분석

가사교과서는 다른 교과서에 비해 삽화와 표가 많다. 특히 새롭고 최신식의 육아법을 강조하는 육아단원은 그 특성상 그림이나 사진은 본문내용의 전달에 매우 유용했을 것이라 짐작된다.

『신시대 가사교본 하』(1928)에는 총 21개의 삽화가 있는데, 칼라그림 2개를 포함하여 그림 15개와 사진 6개가 있으며, 『최신 가사교과서 하』(1930)에는 총 11개의 삽화가 있으며 이중 그림은 10개이고, 사진은 1개이다. 『가사신교과서 하』(1930)에 실린 28개의 삽화는 25개의 그림과 3개의 사진자료로 구성되어있다. 마지막으로 『신시대 가사교본 하』(1937) 는 총 21개의 삽화가 있으며, 이중 1개의 칼라그림을 포함하여 19개의 그림이 실려 있고, 사진은 1개이다. 그런데 이상의 삽화에서 흥미로운 점은 각 교과서에서 비슷한 삽화가 중첩된다는 사실이다. 특히 네 교과서 모두 '기저귀 착용', '현미경으로 본 우유', '우유 소독기', '포유기', '치아의 발생순서'에 관한 그림이 실려 있었다. 또 모든 교과서는 '유아의복'을 소개하고 있는데 특이하게도 오찌키요(1928)

<표 4> 육아단원 각 내용별 쪽 수 단위 (쪽수, %)

교과서 \ 단원	모성	부인위생	임신	출산	신생아 및 유아	포유	젖니	이유	유아의의식주	보육	취학	질병
『신시대가사교본 하』(1928)	1 (1.6)	4 (6.3)	4 (6.3)	5 (7.9)	7 (11.1)	9 (14.2)	3 (4.8)	2 (3.2)	5 (7.9)	14 (22.2)	2 (3.2)	7 (11.1)
『최신가사교과서 하』(1930)	3 (4.2)	·	6 (8.3)	4 (5.6)	8 (11.1)	18 (25.0)	2 (2.8)	3 (4.1)	10 (13.9)	13 (18.1)	·	5 (6.9)
『가사신교과서 하』(1930)	2 (2.9)	·	6 (8.6)	6 (8.6)	13 (18.6)	17 (24.3)	2 (2.9)	2 (2.9)	6 (8.6)	8 (11.4)	3 (4.3)	5 (7.1)
『가사신교과서 하』(1937)	2쪽 (2.3)	·	5 (5.7)	7 (8.0)	16 (18.4)	12 (13.8)	2 (2.9)	8 (9.2)	4 (4.6)	14 (16.1)	4 (4.6)	13 (15.0)

와 좌보회(1937)의 교과서에는 칼라로 실려 있었다. 또 삽화는 '유아의 의식주' 단원에 많았다.

반면, 삽화에 비해 많은 수는 아니지만 가사교과서에는 교과내용의 이해를 돕는 표와 그래프도 있었다. 삽화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내용이 중첩되었는데, 오찌키요(1928)와 이시자와치마(1930)의 교과서에는 공통적으로 '일본건강아의 발육 표'가 수록되어 있으며, 앞서의 두 교과서와 좌보회(1937)의 교과서에는 내용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우유의 1일양'이 표로 제시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6>과 같다.

2. 육아단원의 내용적 측면

'가사에 대한 제반의 근본적 지식을 제공하고 또한 이를 실제상에 응용하는 기술을 습득하게 함이 제일의 요건으로 삼'(작자미상, 1930)은 가사교과목의 교과목표는 가정의 '생활개량'이었다. 즉 가정(家政)은 여성에게 '治家의 術과 道'를 가르치는 교과목(전미경, 2005a)으로 이를 통해 각 가정은 전통의 구습에서 벗어나게 하여 나날이 변화하고 진보하는 시대에 순응하여 가정생활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오찌키요, 1928). 특히 가사교과서에서 '육아' 단원은 미래의 국민이 될 자녀양육에 관한 단원이기에 그 중요성은 매우 컸으며, 그것은 육아단원의 상당한 비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육아단원의 하위영역은 교과서별로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다시 말해 '부인위생' 중단원이 『신시대가사교본 하』(1928)에만 실린 것과 『최신가사교과서 하』(1930)에만 '취학' 중단원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1개의 중단원은 구체적 내용과 순서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그 핵심적 내용은 큰 차이가 없다.

다음으로 육아단원의 하위 영역별 내용을 크게 범주화하였을 때, 그것은 '모성', '부인위생', '임신', '출산', '신생아 및 유아', '포유', '젖니', '이유', '유아의 의식주', '보육', '취학', '질병'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이제 하위 영역별 내용 및 특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① 모성

어머니가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은 어머니로서의 귀한 의무임과 동시에 가장 큰 기쁨이다. 또 그것은 가족의 행복이고 한 나라의 번영에 기초가 될 수 있으니 국가를 위해서도 극히 귀한 의무이다. 어머니가 되는 것은 천직이며, 여자가 되어 양육하지 않으면 여자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작자미상, 1930; 오찌키요, 1928). 이와 같이 네 교과서 모두 어머니 노릇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어머니의 자녀양육은 단순히 개인이나 한 가정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모성됨의 의의를 강조하였다.

② 임신

임신 단원은 크게 '월경 중지', '입덧', '유방의 증대', '태동', '부종', '변비', '요통', '치통' 등과 같은 '임신의 징후'와 '의복', '음식', '운동', '목욕', '수면시의 주의' 등을 설명하는 '임신 시 신체상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태동 및 임신시의 흔한 질병을 소개하는 '임신 시 정신상 주의사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네 교과서 모두 임신시 일어나기 쉬운 몸과 마음의 질병과 그 때의 주의사항을 말하면서 의사 진찰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임신 시 신체상 주의 사항'으로 운동과 청결을 강조하면서 소화가 용이하고 풍부한 영양분의 음

〈표 5〉 교과서에 수록된 삽화[3]

교과서	제목	형태	교과서	제목	형태
신시대 가사교본 / 1928	한난계	그림	최신가사교과서 하 / 1930	태아의 위치도	그림
	유아 의복	그림		배내옷	그림
	기저귀 착용	그림		신생아용 목욕통과 바구니	그림
	외출 시 유아침구	그림		소아 목욕용 바케스	그림
	아이 안기	사진		기저귀 채우는 법	그림
	현미경으로 본 우유	그림		유착지	그림
	우유 소독기	그림		우유기구 종류	그림
	포유기	그림		유아의복	그림
	유치와 영구치 발생순서	그림		아동방	사진
	치아의 청결	그림		대바구니로 만든 안전 유아차	그림
	완전하게 발육한 7세 여아와 구루병에 걸린 7세 여아	그림		영구치 나는 순서	그림
	만 3세부터 9세까지의 남녀아의 복식그림	그림	가사신교과서 하 / 1930	임신말기의 태아	그림
	침대	사진		복대	그림
	아동실 일례	그림		산의	그림
	운동	사진		생후 7개월 반의 아이가 움직이는 모습	그림
	좋은 완구	사진		신생아 입욕 그림	그림
	좋은 완구	사진		제대 보호	그림
	몬테소리, 프레벨 교구	사진		유즙검광도	그림
	회충	그림		기저귀 천 사용법의 예	그림
	십이지장충	그림			
	도충	그림		포유그림	그림
가사신교과서 하 / 1937	개량산의(改良産衣)	그림		착유기	그림
	포모기장	그림		우유소독	그림
	기저귀 차는 방법	그림		우유 소독기	그림
	숙면	그림		유포기	그림
	안고, 업는법	그림		보육시설 내 소아실	사진
	발육(신체명부의 비교)그림	그림		보육시설 내 목욕실	사진
	체중계	그림		유치발육 순서	그림
	1개년간의 발육	그림			
	초유, 성유	그림		발육정도가 좋은 아이와 나쁜아이	그림
	젖 먹이는 법	그림		평상복	그림
	착유기	그림		잠옷	그림
	우유 멸균기	그림		각종 소아옷	그림
	포유기구와 포유하는 방법	그림		정상 발과 맞지 않는 구두로 변화된 발	그림
	유치의 발생순서	그림		맞지 않은 구두로 인한 발의 상처	그림
	치아의 발생순서	그림		맞지 않은 구두로 인한 발의 상처	그림
	스스로 앉으려고 하는 노력	사진		소학교 생도의 실습	사진
	기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림			그림
	일어서려는 노력	그림		소아실 평면도	그림
	남녀아이의 복장그림	그림		소아실 측면도	그림
	디프테리아의 인후	그림		완구종류의 예	그림
	완구그림	그림		완구류	

식 섭취를 권장하였다. 특히 단백질, 칼슘, 비타민이 많이 함유된 음식 섭취를 권장하면서 짙은 차, 커피, 술 등의 기

3) 제목은 삽화 아래에 적기된 글을 의미한다. 저자들은 삽화의 제목을 달기도 했지만 제목을 생략한 채 그 삽화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덧붙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어떤 삽화는 제목도 설명도 없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때에는 그 그림의 내용을 적었다.

호 식품을 금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 '임신 시 정신상 주의사항'으로 태아발육에 악영향을 미치는 신경과민을 경계할 것과, 바른 행동으로 어머니 될 수양을 닦을 것을 강조하였다.

종 오래되어 소독효과가 없는 것이 있으므로 주의 하여 구매"할 것을 당부하고 있었다. '산파·산원(産院)'의 단원에서는 출산기일 전에 입원하여 안전하게 총체적인 처치를 받을 것을 권하였으며(이시자와치마, 1930), 체질, 임신상태, 초

〈표 6〉 교과서에 수록된 표

교과서	제목	형태	교과서	제목	형태
신시대가사 교본 하 / 1928	출생증	표	가사신교과서 하 / 1930	일본 건강아의 발육 표	표
	유아의 1일 시간표	표		개월에 따른 우유 량	표
	우유탕과 중량	표		개월에 따른 우유 희석법	표
	일본아동 발육표	표		연유의 조유(調乳) 희석	표
	홍역체온표	그래포	가사신 교과서 하 / 1937	출산 후 사망원인	표
	성홍열의 체온표	그래프		울음	표
	모유·우유·산양유의 성분	표		올바른 수유시각	표
최신가사 교과서 하	우유별 비타민 함유 비교표	표		우유와 모유의 비교	표
	연유량	표		혼합포유	표
	연령에 따른 수면정도	표		우유살균	표
				유(乳)의 성분 비교표	표
				소아성 폐렴	그래프

한편, 『신시대 가사교본 하』(1928)에는 '임신' 단원 외 '부인위생' 단원이 따로 있었는데, 여기에 실린 내용은 타 교과서에는 '임신' 영역에 실린 내용과 큰 차이가 없으나 특히 여성은 위생을 지켜 생리적·심리적으로 자녀에게 해를 입히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③ 출산

전체적으로 '출산' 영역은 출산과정과 유아 및 산모 자신의 출산을 위한 구체적 준비사항을 설명하면서, 출산시 당황하지 않도록 해야 함이 강조되는 가운데 출산 준비를 위하여 '마음의 준비', '산의', '기저귀', '침구', '산구'에 대한 내용과 '출산 일시', '경과', '과정'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며, 산후의 섭생 부분에는 '섭취의 정량', '음식물', '신체', '정신의 안정', '청결', '변통'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출산을 위해서 먼저, 넉넉한 크기의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산의'와 아기를 위한 '배내옷'이 필요한데, '배내옷'은 흰 목면제, 타올제의 소재가 좋으며, 옷의 시접으로 인해 유아가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 밖에 목면, 플란넨 소재의 '기저귀', 부드럽고 가벼운 소형의 아기용 '침구' 및 수십 가지의 '산구' 용품을 소개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최신 가사교과서 하』(1930)에는 "최근에 약국에서 출산 준비물을 상자 하나에 모아 팔고 있으나, 그 가운데에는 종

산여부에 따른 출산시간을 설명하였다. 또, 영아는 생후 14일 이내에 이름을 지어 동사무소(혹은 시내 촌장)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였다.

산후의 완전한 신체 회복은 약 6주간을 필요로 하는데 이 기간을 '산욕기'라 하고 이 시기에 섭양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태만히 하면 건강을 해치고 불치병이 되거나 심한 경우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하였다. 목숨을 위협하는 산욕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청결'에 주의할 것과, 출산 후 산모의 음식·대소변 현상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또 후일 자녀의 교육과 양육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출생 당시의 체격, 영양 방법, 심신의 발육상태 등을 상세히 기록한 '육아일기'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이시자와 치마, 1930; 좌보회, 1937).

④ 신생아 및 유아

먼저 신생아와 유아의 정확한 의미를 말하면서, 신생아 양육의 중요성 및 건강아의 특징을 설명하였다. 또 개월 수에 따른 신생아의 신체 발육 상태를 설명하였다. '보호'는 신생아의 양육과 관련된 내용으로 '탯줄', '입욕', '의복', '배변', '안는 법과 업는 법', '발모', '침구와 수면'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청결과 위생 측면이 강조되는 가운데, '탯줄'은 목욕시 주의할 사항

과 그 관리방법을 말하고 있으며, '입욕'은 신생아의 구체적 목욕방법을 설명하면서 특히 깨끗한 물이 적신 가제로 눈과 입을 닦아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의복' 역시 청결을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시 여겼으며, 다음으로는 아동의 체온 보호와 의복이 아동의 활달한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을 말하였다. 그리고 출산시 신생아의 '태변', '수면', '발모', 다른 의미를 가진 '울음소리' 등을 설명하였다. 유아를 재울 때는 정면자세와 측면자세 등으로 자주 바꿔주지 않으면 두개골이 일그러질 위험이 있다고 하면서 네 교과서는 안는 법과 업는 법의 주의 점을 강조하였다.

⑤ 포육

포육의 종류에는 '모유포육', '유모유포육', '인공포육', '혼합포육'으로 구분되는데, 먼저 '모유포육'은 유아에게 가장 "완전식품", "천연영양"으로서 필요한 영양성분을 완비하고 있으며(오찌키요, 1928), 모체에서 유아의 몸으로 이동한 "항독소"는 유아의 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준다고 하면서 모유의 우수성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모유수유는 모자간의 애정을 더욱 돈독히 한다고 말하였다(작자미상, 1930). 또 모유포육에는 "초유"의 특징과 영양소를 포함하여 모유를 수유할 때의 방법과 주의사항을 덧붙이고 있다. 두 번째로, '유모유포육'은 모유수유가 불가피할 때 선택하는 방법으로, 유모 선택법이 설명되어 있다. 세 번째로, '인공포육'은 모유 혹은 유모의 젖을 쓸 수 없을 때 제일 먼저 모유에 가까운 것을 선택하는데 가장 좋은 모유 대용은 '우유'라고 한다. 여기에는 우유포육방법 및 주의사항을 그림과 표로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혼합포육'은 모유가 부족할 때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해 우유, 분유 등을 같이 먹이는 것으로 생후 1개월부터 시작하라고 말한다.

⑥ 젖니

네 교과서를 종합해 보면 젖니 나는 시기는 생후 6-7개월 무렵이고 2세가 넘으면 상하 20개가 갖춰지며 7,8세가 되면 젖니는 빠지고 영구치가 난다. 젖니가 날 무렵이면 잇몸이 충혈 되고 물건을 깨물려고 하며 침을 흘리고 신경과민이 된다. 어머니가 주의해야 할 유아의 치아관리를 말하고 있다.

⑦ 이유

7-9개월 무렵부터 소량의 다른 음식을 먹이고 수유량을 줄이면서 점차 음식량을 늘려 1년-1년 반 정도에 완전히 이유해야 하며, 이유기 음식으로 소화하기 쉽고, 영양분이 풍부한 것을 권장하였다. 특히 우유와 함께 단백질, 지방식(계란노른자, 연한 어육, 고기스프), 탄수화물(중탕, 갈탕, 죽), 무기질류, 비타민식(야채스프, 과실즙)을 함께 섭취하면 좋다고 하였다. 또 이유방법 및 이유시의 주의사항이 실려 있다.

⑧ 유아의 의식주

유아의 의식주 단원에서는 '의복, 음식물, 공간'에 관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는데 먼저 '의복'을 고를 때 주의사항으로 유아의 신체와 체력의 발달에 맞춰 위생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청결을 유지하고, 보온성, 통기성이 풍부한 소재로 아이에게 잘 맞고 가볍고, 간단하며 경제적으로 적당한 것을 골라야 한다고 하였다. '음식물'은 소화하기 쉽고, 영양분의 배율에 주의해 각종 식품을 편식하거나 과식을 하지 말고, 골고루 섭취하도록 해야 하며, 간식은 가벼운 맛의 소화하기 쉬운 것을 때를 정해 약간만 주고, 점차 주지 말도록 했다. 또 유아 식사예절의 중요성 및 좋은 식습관의 항목이 소개되고 있었다(이시자와 치마, 1930; 작자미상, 1930). 마지막으로 아동의 방은 어머니가 머무는 방에서 가깝고, 해가 잘 들고 공기가 잘 통하며 습기가 없는 쪽이 좋으며, 정돈은 스스로 하도록 했다.

⑨ 보육

보육의 목적은 유아의 신체 및 지능의 자연적 발육을 조성하고, 자녀에 대한 가르침의 기초를 만드는 것으로, 이것은 어머니의 중요한 책무로 제시되었다. 보육 영역은 크게 '수면', '청결', '운동', '덕목', '가르침', '유희', '완구', '그림·수공', '그림책과 책'으로 세분화된다. 먼저, '수면'에서는 연령별 수면시간, 수면시 유아의 성장, 침구의 청결, 수면습관 등이 실려 있다. 둘째, 육아단원의 중요한 핵심어인 '청결'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강조되었는데, 어머니는 매일 아침 유아의 코와 입을 씻어주고, 5-6세가 되면 칫솔로 이를 닦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셋째, '운동'은 소아의 신체를 완전히 발육시키기 위한 전제 조건이지만 무리한

보행은 유아의 성장을 저해하므로, 대신 마당 한 쪽에 모래밭이나 미끄럼틀 등을 간단히 만들어 줄 것을 권유하였다. 넷째, 가사교과서는 성실, 예의, 동정, 규칙과 같은 '덕목'의 습관화를 강조하였고, 다섯째, 조상 공경, 성실, 박애, 정돈, 독립, 자치, 근로, 겸손, 절약, 예의범절, 노역, 친구, 상벌, 언어, 암시 등의 내용을 '가르침'의 영역에 포함시켰다. 여섯째, '유희' 활동은 유아의 천성이므로 기운차고 자유롭게 놀게 해 심신의 발달을 도와야 한다고 말하였다. 일곱째, '완구'는 소아를 즐겁게 하고 감각기관을 연습하고 지육, 덕육을 기르고, 건강을 증진 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완구선택과 취급시의 주의사항을 말하였다. 여덟째, '그림과 수공'은 유아의 즐겁게 함은 물론 이를 통해 감각기관의 연습을 키울 수 있으며, 아홉째, '그림책과 책'에서는 유아의 지덕의 증진에 도움이 되지만 잘못 선택된 책은 오히려 해가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⑩ 취학

의무교육으로서의 학교교육은 만 6세에서 만 14세까지의 아동을 취학시킬 의무를 말한다. 『가사신교과서 하』(1930)에는 학령에 달해도 심신의 발달이 불충분하다면, 의사와 상담해 취학을 유예할 수도 있다고 했고, 통학의 마음가짐으로 취학한 이상 빠지지 말고 출석하여 학업에 분발하도록 이끄는 것이 보호자의 의무라고 하였다. 아동의 교육을 철저하게 하려면 학교와 가정은 항상 연락을 통해 일치 협력하여 아동의 교육을 맡아야 하는데 어머니 및 보호자는 때때로 학교를 참관하여 아동의 수학 상황을 시찰하거나, 담임교사와 상담하여 교육력을 높여야 했으며, 복습과 예습의 감독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⑪ 질병

네 교과서를 종합해 보면 소아는 신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대개 자극과 병원균에 대한 저항력 저하로 인해 쉽게 병이 걸리며, 또 병에 걸려도 스스로 그 용태를 모를 뿐 아니라 분명히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 병세의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한다. 그러나 어머니가 주의 깊게 아동을 관찰하여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다면 그 쾌유 속도는 매우 신속하다. 따라서 어머니는 항상 '소아의 변통', '식욕', '기분의 좋고 나쁨', '웃음의 유무', '체온', '운동' 등에 주의함과 동시에, 소아가 걸리기 쉬운 병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미 걸렸을 때는 조기에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의 질병에 대한 적절한 대처는 어머니의 중요한 의무사항으로, 어머니는 '소아가 걸리기 쉬운 병과 처치'를 알아야 했다.

이처럼 육아단원은 여성에게 어머니됨의 의미와 함께 어머니 노릇의 구체적 지침을 설명하고 있었다.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것은 다음 세대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함이라는 전제 아래, 여성은 가정(家政)에 관한 최신지식을 습득하여야 했고 동시에 일국의 번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녀를 훌륭한 국민으로 양육해야 했다. 이 지점이야말로 여성이 진정으로 국가에 공헌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육아는 여성교육의 핵심적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 가사교과서에서 말하는 육아는 실천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었다. 무엇보다 교과서에서 언급되는 수많은 육아지식과 육아에 필요한 도구들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었기 때문이다.

V. 결론 및 제언

실천적, 기능적, 종합적 교과로의 성격을 갖는 가정교과는 근대적 여성교육이 시작된 이래 여성교육의 핵심적 영역으로 출발하였다. 또 당시의 가정(家庭)은 자녀 즉 제2국민의 생산과 양육이란 중요한 기능이 부여되었고 동시에 여성은 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해야 하는 책무가 주어졌다. 이것은 여성이 근대적 교육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전제적 조건으로 작용하였는데, 교육받은 여성만이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면에 주목하여, 이 연구는 식민지시기에 발행되었던 가사교과서 중 수집 가능한 『신시대 가사교본 하』 (1928), 『최신가사교과서 하』(1930), 『가사신교과서 하』(1930), 『가사신교과서 하』(1937)) 등 4권의 교과서의 '육아'단원을 내용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사교과서의 육아단원의 단원별 체제는 크게 '편, 장, 절'의 단계로 되어 각 교과서의 전개는 거의 비슷하며, 그 내용면에서도 매우 흡사하다. 즉, 대단원인 '육아편'에서는 '모성', '부인위생', '임신', '출산', '신생아 및 유아', '포유', '젖니', '이유', '유아의 의식주', '보육', '취학', '질병'이

전개되었다.

둘째, 가사교과서는 다른 교과서에 비해 삽화, 표가 많은 편인데, 이는 긴 설명이 필요 없이 교과내용을 시각적 자료로 전달하기 위함이었다. 『신시대 가사교본 하』(1928), 『최신 가사교과서 하』(1930), 『가사신교과서 하』(1930)의 교과서에는 '유아의 의식주' 단원에서 가장 많은 삽화, 그림을 볼 수 있다. 또한 『신시대 가사교본 하』(1928), 『가사신교과서 하』(1930), 『신시대 가사교본 하』(1937)는 많은 종류의 '완구'들을 자세히 보여주었는데 특히 『신시대 가사교본 하』(1928)는 사진으로 정밀하고 사실감 있는 자료를 제시하였다. 모든 교과서는 '유아의복'을 소개하였다. 그림에 이어 『신시대 가사교본 하』(1928)에는 '포유'와 '질병'에 2개씩의 표를 수록하고 있었으며, 네 교과서 모두 '포유' 단원에 "우유 1일 먹는 량, 우유의 구성 성분"과 같은 표를 수록하였다. 또 겹치는 삽화로 그 내용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는데 우선 네 교과서 모두 '기저귀 착용'에 관한 그림을 통해 그 착용순서를 확실히 알 수 있으며, 『최신 가사교과서 하』(1930), 『가사신교과서 하』(1930), 『신시대 가사교본 하』(1937)에서는 동일한 '유착기(乳搾機)' 그림이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네 교과서는 '보육', '포유', '신생아 및 유아'에 많은 지면수를 할애한 것으로 보아 이 영역을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셋째, 육아단원은 '모성', '부인위생', '임신', '출산', '신생아 및 유아', '포유', '젖니', '이유', '유아의 의식주', '보육', '취학', '질병'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개순서와 그 내용의 심화정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모든 교과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임신과 출산 과정의 자세한 설명을 통해 모성의 위대함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올바른 육아를 위하여 어머니는 아동의 특성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의 습득을 요구하였다. 특히 '임신'과 '출산'의 준비를 위한 필요한 사항과 '이유식'의 준비들은 세밀히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는 많은 상품과 연계되어 있어 현실과 상당히 유리되어 있으며, '포유'시의 세세한 방법의 제시 또한 현실과 동떨어진 면이 많았다. 그리고 어머니는 질병의 종류와 관련된 의학적 지식을 습득해야 함을 강조하였고, 질병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관찰하고 주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네 교과서 모두 '우유소독기', '포유기', '치아의 발생순서'에 관한 그림을 수록하여 "청결과 위생"을 강조하였다. 한편, 이상의 내용은 오늘날 7차 교육과정의 '육아' 단원과도 흡사하다. 즉 식민지시기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교과서에도 '신생아'의 발달적 특징이 자세히 언급되고 있으며, 모유·우유 먹이기, 아기 목욕시키기, 아기 기저귀 갈아주기 등의 내용이 실려 있다.

식민지 시기 여성은 '어머니'가 되어야 했다. 모성은 여성이 근대적 신교육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명분이었을 뿐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소명을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었다. 당시의 이상적 여성상이었던 '현모양처'는 '현모'에 훨씬 더 무게중심이 실린 채 전개되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참된 신여성이 수행해야 할 전형적 역할로서, 이보다 더 중요한 여성의 본분은 없었다.[4] 어머니 노릇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어는 '위생'으로서, 비위생적 육아의 결과는 죽음을 초래하는 질병으로 환원되어 설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조의 주장은 위생적 어머니 노릇의 강조를 너머 자녀의 질병 자체를 잘못된 어머니 노릇의 결과로서 해석함으로써 여성의 어머니 노릇은 그 중요성만큼이나 세심함과 완벽함이 요구되었다. 육아단원이 말하는 이러한 측면은 어머니로서의 여성의 사회적 중요성을 환기시킴으로서 여성의 역할을 재인식하도록 하는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어머니로서의 규범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동시에 창출하고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식민지 가사 교과서에서 육아단원만 분석하였으나 이후 의·식·주 등 기타 단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당시의 적지 않은 사람들은 가정·가사 교과목은 비용이 많이 들고,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을 가르친다고 비난하였다. 그러므로 실제로 식민지 시대 가사교과가 어떻게 운영되었는가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다. 당대의 여학교 『교지』를 분석한다거나 여학교를 다녔던 노인을 심층면접 하는 등 다양한 접근법을 통해 당시의 가사수업을 이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셋째, 실천교과서로서 생활교육을 통해 자립적인 생활인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사교과서를 교과서가 발행된 시대적 배경아래 통시대적으로 분석

4) 1920~30년대 현모양처 담론에서 여성의 모성성에 대한 논의는 전미경(2004b) 참조.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5] 이를 바탕으로 교과서 분석을 통해 7차 교육과정까지 이른 우리나라 '가정교과' 위상을 정립해 보고 그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 후속 연구가 이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국윤옥(1996), "한국과 일본의 국민학교 실과 교육과정 비교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영주·신양재(1992), "한국 신문에 실린 아동양육에 관한 기사내용분석(Ⅰ)", 대한가정학회지 30권 4호, pp.249-260.

김재인(2001), 『한국 여성 교육의 변천과정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나유경(2005), "한국, 일본, 대만의 가정 교과서 식생활 내용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순자·신상옥(2000), "한국과 일본의 실과 및 기술·가정과교육의 역사적 변천 비교",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2권 3호, pp.65-76.

신상옥(1995), "중학교 가정교과서 분석 및 조사연구", 한국교육문제논문집, pp.31-39.

안태윤(2001), "일제하 모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유해정(1990), "일본 여성 노동운동", 여성과 사회1, pp.139-165.

윤인경(1996), "중학교 가정교과서 분석연구(Ⅰ)",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8권 1호, pp.79-91.

윤인경(1996), "중학교 가정교과서 분석연구(Ⅱ)",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8권 2호, pp53-64.

윤인경(1997), "중학교 가정교과서 분석연구(Ⅲ)",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9권 1호, pp133-143.

윤인경(1998), "고등학교 가정교과서 분석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0권 2호, pp87-99.

이만규(1991), 『조선교육사』, 한일문화사.

이송희(2005), "한말, 일제하의 여성교육과 여성교육정책", 여성연구논집16집, pp.1-35.

이영숙(1999), "중학교 교과서 식생활 내용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종국(1991), 『한국의 교과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이희경(2005), 『신여성: 매체로 본 근대여성 풍속사』, 한겨레신문사.

장 신(2004), "한말·일제강점기의 교과서 발행제도와 역사교과서", 역사교육 91집, pp.1-23.

전미경(2005a), 1900-1910년대 가정교과서에 관한 연구: 현공렴 발행 『한문가정학』, 『신편가정학』, 『신정가정학』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7권 1호, pp.131-151.

전미경(2005b), "1920-30년대 '모성담론'에 관한 연구 : 『신여성』에 나타난 어머니 교육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7권 2호, pp.95-112.

전미경(2004), "식민지 시대 '가사교과서'에 관한 연구 : 193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6권 3호, pp.1-25.

전미경(2004b), "1920-30년대 현모양처에 관한 연구 : 현모양처의 두 얼굴, 되어야만 하는 현모, 되고 싶은 양처",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권 3호, pp.75-93.

지화연(2005), "1920~30년대 잡지 『신여성』에 나타난 가정관련 기사분석",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덕희(1980), "韓國의 家政科教育 變遷에 關한 硏究", 서울교육대학교 논문집 13권, pp.511-552.

정덕희(1993), "舊韓末 開化期부터 8.15 光復까지의 家政科 教育의 變遷에 關한 硏究",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경원(1999), "대한제국 말 여학생용 교과서에 나타난 여성교육론의 특성과 한계", 교육과학연구 30권 1호, pp.1-17.

차미경(1991), "중학교 가정교과서의 국제비교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차향선(1999), "한국과 일본의 초등공교육 비교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차호임(1997), 『소파방정환의 아동교육사상』, 이서원.

최정혜(2002), "중학교 기술·가정교과서의 가족생활 영역 분석",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4권 1호, pp.15-25.

5) 식민지 시기 '육아'가 여성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논의는 이희경 외(2005) 6장 "과학, 또다시 어머니를 만들다" 참조.

〈국문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1922-1937년 사이에 발행된 가사교과서의 육아단원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내용분석의 연구방법으로 문부성 검정을 받은 『신시대 가사교본 하』(1928), 『최신 가사교과서 하』(1930), 『가사신교과서 하』(1930), 『가사신교과서 하』(1937)를 분석텍스트로 삼아 육아단원의 외형적 측면과 각 하위단원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는 식민지 시기 가정교과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당시에 요구되었던 '어머니 노릇'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구체적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사교과서의 육아단원의 단원별 체제는 크게 '편, 장, 절'의 체계로 되어 있으며, 다른 교과서에 비해 삽화, 표가 많았는데, 이는 시각적 자료를 통해 교과내용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함이라 여겨진다. 둘째, 육아단원은 '모성', '부인위생', '임신', '출산', '신생아 및 유아', '포유', '젖니', '이유', '유아의 의식주', '보육', '취학', '질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은 교과서별로 큰 차이가 없다. 셋째, 전반적으로 네 교과서는 '보육', '포유', '신생아 및 유아'에 많은 지면수를 할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 영역이 육아단원 가운데 중요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넷째, 식민지 시대의 가사교과서는 임신과 출산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또 어머니는 올바른 육아를 위하여 아동의 특성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의 습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다섯째, 가사교과서는 육아에 있어 청결과 위생을 강조하였다. 어머니는 아동이 쉽게 걸리는 질병의 종류와 관련된 의학적 지식을 습득할 것이 요구되었다.

■논문접수일자: 2006년 1월 31일, 논문심사일자: 2006년 2월 6일, 게재확정일자: 2006년 6월 15일